



지난 2003년 시작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방향 가능성을 물론 전남 농산물 판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예술관 미니 박 터널(왼쪽)과 이색 농산물관에 전시된 특이 농산물.

놀라워라 농업신기술, 신기해라 이색농산물

제12회 농업박람회 23일~11월2일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제12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23일 개막해 11월 2일까지 11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진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명농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농업박람회의 주 전시는 아열대 식물원, 농업예술관, 우수 농산물관, 곤충산물관, 농산물관, 생명농업관, 농업미래관, 녹색축산물관 등 10개관으로 꾸며진다. 판매장 2개소(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장과 향토음식 장터)도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난해와 달리 농업기술관과 농업홍보관 등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박람회에 첫선을 보이는 '이색농산물 정원'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박람회의 특징은 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과 농업인 성공사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술전시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신기술을 배우려는 장으로 준비했다. 또 부가치 창출을 위한 전시관 내설화



잭후르츠(아열대식물원)



소철(아열대식물원)



특이한 모양 박(이색 농산물관)



이상하지만 예쁜 고추(이색 농산물관)

노랗게 익은 유자와 '부처님손'이라 불리는 불수갑(佛手柑)이 가지가지 열려있고, 머리 위를 가득 덮은 머루랑 참다래가 침샘을 자극한다.

'곤충산물관'은 아이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기에 충분하다.

곤충·양잠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종합적으로 연출하고, 미래시각으로 각광받는 식용곤충 맛보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사슴벌레, 나비, 애벌레 등 각종 곤충들이 전시돼 있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색농산물 정원'은 특이한 모양의 박과 대형 호박 등 쉽게 볼 수 없는 각종 농산물들로 꾸며진다. 또 묘한 모양으로 시선을 끄는 관상용 고추는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것이다.

'농업 기술관'은 미니 농산물 재배동산을 조성하고 신기술 재배법, 유기토양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법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연구·개발한 친환경 자재와 시험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농업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생명농업관'과 미래농업에 대한 전망,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 6차산업 전시, 토종 종자 등이 전시된 '농업 미래관'도 준비돼 있다. 기술전시로는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농업기술 보급사업 및 청년창업 성공사례 등을 전시·홍보한다.

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성공사례 한눈에 바이어 초청 200억원 수출계약 성사 목표

◇농업의 미래발전 방향 제시=이 밖에도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 거리를 선사할 특별행사 6종과 농산물 수확 등 체험·공연행사 26종이 마련된다. 특별행사로 전국 최초로 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색농산물 실내정원 콘서트'를 비롯해 생활원에공모전 작품, 농업 및 농촌 관광 사진, 분재대전 작품, 농산물 상징담 등 전시된다. 특별체험 프로그램으로 치즈 만들기과 농작물 타차, 연 만들기 등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중국 기업단의 서커스 공연과 매직쇼, 청소년 댄스공연, 비보이 댄싱 공연, 추억의 7080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농업박람회는 지난 2003년 '남도 농업박람회'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하며 양적·질적 발전을 이뤄 우리나라 농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국제 대회로 열린 지난해 박람회는 40만명이 넘는 관람객과 80여억원의 농·특산물 수출계약, 400여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경주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농업박람회는 농업인들에게 기술도 보여주고 돈을 버는 농업이 되도록 기술 박람회와 비즈니스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품종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시골 현장에서 생산비를 절감한 우수사례를 전시·제공하고,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해 200억원 이상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생산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명농업' 주제 10개관 신기술 배우고 다양한 공연 즐겨

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특산물과 가공 제품의 판매 품목도 확대했다. 박람회장내 주요 전시관의 볼거리를 소개한다.

◇예술로 승화시킨 농산물 즐비=개막식 행사가 열리는 대운동장 주무대 좌·우측에는 도내 22개 시·군 농업홍보관과 탐방객을 위한 체험마당이 마련돼 있다.

관람객 동선은 아열대 식물원을 시작으로 농업예술관→곤충산물관→농업기술관→우수 농산물관 순으로 이어진다.

'아열대 식물원'은 열대 관엽식물 및 과수식물 정원, 난대성 식용작물 및 공중식물 정원, 다육식물 및 향기식물 정원, 토피어리 및 관상화 화식물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나무열매 중 두 번째로 큰 방글리데시의 '잭 후르츠'(jack fruit)를 놓치기 말아야 한다.

'농업 예술관'은 감쪽한 박 열매부터 우리가 흔히 먹는 상추까지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놓은 말 그대로 '농산물 예술'이다.

예술관 입구에 설치된 막대모양의 박 열매는 관람객들을 내부로 유인하기에 충분한 기이한 모습이다. 예술관 내부로 들어서면 중앙 통로에 각종 악기와 여러 종류의 박과 수세미, 난 꽃으로 장식한 터널이 눈을 활활하게 한다.

또 검은 고추가 주렁주렁 열린 고추나무와 천장에 매달린 수박과 농이 은 오이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듯하다. 전시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주 원도심 문화재 활용사업 활기

문화재청 공모 2개 선정 사업비 확보

나주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문화재 활용사업에 파란불이 쬐겼다.

나주시는 "문화재청이 공모한 2015년 문화재 활용사업에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사업과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사업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분야에 신청한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사업은 선정된 전국 71개 지자체 중에서 12대 역점사업에 선정돼 2년 연속 전국 최다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또 '생생 문화재 사업'분야에 신청한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사업은 4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원도심 재생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의 복원 정비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활용사업에 통해 역사관광도시 나주 조성에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

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나주향교 활용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와 유서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나주향교를 활용해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다양한 강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지역 발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나주 이야기꾼 양성'(사진)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812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207명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나주 읍성권의 문화유산과 쪽염색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해 매진을 기록하는 나주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시는 2015년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성공을 위해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주만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주가 역사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새로운 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나주 혁신산단 27일부터 분양 시작

나주시가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나주 혁신산단단지내 산업시설 용지(122만㎡ 규모) 분양에 나섰다. 3.3㎡당 분양가는 62만 7000원(㎡당 19만원)이다.

분양신청기간은 27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유치입종은 금속·전자 부품·전기·식품·화학·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다. 내년 4월부터 공장건립이 가능하다.

입주 우선순위는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에서 분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나주시 및 전남도와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 추천을 받은 업체 ▲입주 면적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순이다.

수도권 이전기업이 입주하면 입지 보조금 40%와 시설보조금 22%를 지원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규모, 농산물 등 지역 원자재 구입규모 등을 반영해 입지보조금을 10~20%를 지원한다.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는 4년간, 재산세는 5년간 감면하고, 취득세는 4년간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분양공고에 대한 세부일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와 나주 혁신산단(주) 홈페이지(www.najuin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 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개 교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5등 자전거 12명
2등 드림세탁기 3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3등 세습기 9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4등 쿠키인력발습 12명	8등 이차상 1200명

*동급사은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종료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 본점 671-5000 (KBC광주광역시지부)

양림 지점 652-9203 (가독병원 아래)

월산 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 2013년 12월 26일 장소 : 남구문예회관

사랑의 증도리쌀 500가마 전달

희망 장학금 2,400만원

소화기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광주지역 자산 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공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2%)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헌준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시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